

한국의 불어교육: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송정희
(한국외국어대)

Song, Chung-Hie. (1999). French education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 203-214.

In an effort to invigorate French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makes a diachronic investigation into French education in Korea. In this study, we will take a look at French education goals and French textbooks, including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year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current French education and suggests some possible solutions.

The problems in French education today include a decrease in the number of French learners, the disparity between educational goals and reality, and the poor quality of the teacher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1) smaller classes consisting of fifteen to twenty students, 2) the adoption of French listening-comprehension test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3) the setting of realistic educational goals, and 4)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rench - i.e. French for special purposes - based on learner's need.

I. 불어교육의 역사

한국의 불어교육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밖에서의 불어교육 등 3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제2외국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불어교육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1. 불어도입의 역사

1) 우리 나라가 불어를 처음 접한 것은 18세기 초엽 프랑스인 신부들이 한국에 오면서 시작되었다. 1880년에 선교사들이 만든 최초의 한-불사전이 나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불어교육은 1886년 한-불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1895년에 설립한 불어학교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역사가들은 본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후로 외국어학교는 폐쇄되었다. 1910-1945년 일본의 점령 기간동안 일본은 정치적인 관계로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독어를 더 많이 배우도록 독려하였다. 점령 말기에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불어교육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1945년에 서울대학교에 불어불문학과가 창설되기 시작하면서 불어교육이 다시 시작되었다. 현재는 70여 개의 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과나 불어과가 있다.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프랑스어가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1963년 이후부터이다. 이때 영어가 제1외국어가 되었고 다른 모든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된 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 불어 교사의 수와 학생수의 변천

년도	교사수	학생수
1979	182	146,114
1986	450	289,826
1987	545	344,435
1991	851	341,158
1992	849	317,433
1993	831	316,736
1994	842	312,019
1995	834	323,907
1996	807	318,885
1997	810	323,229
1998	800	289,154
1999	761	242,864

* 1979 - 1987년도 통계는 BCLE, 1991부터는 교육연보의 통계이다.

2. 교육과정에 나타난 불어교육의 목표

모든 교육의 내용은 목표에 따라 한정된다. 불어교과서는 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따라 제작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불어교육의 내용 변화를 알 수 있다. 불어는 1963년부터 정식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2차교과과정(1963-1973), 3차(1974-1982), 4차(1982-1988), 5차(1988-1992), 6차(1992-1998), 7차(1998-)에 걸쳐 개정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불어교육 목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크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70년대(2차, 3차 교과과정)

2차, 3차 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에서 특이한 것은 첫째 문어를 중시한 점과 둘째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이다.

“(1) 표준적인 현대 프랑스어의 평이한 내용으로 된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간단한 발표력을 기른다.

(4) 우리 고유의 생활 양식, 미풍 양속, 전통, 문화 등을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 힘을 기른다.“ (2차 교과과정)

우선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고 문장중심의 문어를 우선 순위로 하였다. 읽고 쓰기를 한 다음 “듣기와 말하기”는 “문법과 어휘의 범위는 쓰기 지도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한다.”(3차 교과과정) 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우리 문화를 프랑스어로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은 1-3학년 동안 주 2시간 수업으로 총 200여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가? 솔직히 말해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 한 학생들 중 몇이나 우리 문화를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4차 교과과정에서는 좀 더 현실 조건을 감안한 목표설정이 시도되었다.

2) 80년대 (4차, 5차 교과과정)

80년대는 시청각 교수법의 이론을 기초로 언어의 4기능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고루 익히고 프랑스 문화를 이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비교적 쉬운 말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른다.

2) 프랑스인의 생활 및 문화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한다.“ (4차 교과과정)

특히 프랑스 I은 “듣기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을 신장하는 기초과정”(5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구어에 중점을 둔 것은 70년대와 비교하여 큰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90년대 (6차, 7차 교과과정)

의사소통 교수법의 이론을 기저로 의사소통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삼았다. 언어의 4기능을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으로 나누어 이해기능을 우선 순위로 두었고 표현은 문법에 맞는 문장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문화도 “프랑스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을 이해한다”(7차 교과과정)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문화”로 한정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항목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언화활동을 제시한 것은 과거와 아주 다른 견지에서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교육목표의 변천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시킨다.

둘째, 프랑스인의 일상생활과 관습을 통해 프랑스 문화를 익힌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를 교과서가 대변해 준다. 따라서 목표에 따라 교과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해보려고 한다.

3. 교과서

1) 70년대 교과서

전통교수법이 주류를 이루었던 이 당시의 교과서는 무엇보다 기초 문법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나 학습자의 지적, 심리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태위주의 “대화 아닌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다.

예: 1. J'ai deux bras. (금성 6과)

André : J'ai deux bras. As-tu deux bras? (나는 팔이 둘이다. 너는 팔이 둘이냐?)

Robert : Oui, j'ai deux bras. J'ai aussi deux mains. (그래, 팔이 둘이야. 손도 둘이고.)

Chaque main a cinq doigts. ... 이다. 손은 다섯 손가락이 있다.)

André : J'ai deux oreilles. Combien d'oreilles as-tu? (... 너는 귀가 몇 개니?...)

Robert : J'ai aussi deux oreilles: l'oreille droite et l'oreille gauche.

André : Combien d'yeux as-tu?

Robert : J'ai deux yeux: l'oeil droit et l'oeil gauche...

2. Les mois et les saisons (일조각 7과)

Prof : Combien de jours y a-t-il dans une semaine? (1주일은 며칠이나 됩니까?)

Namsou: Il y a sept jours dans une semaine. (1주일은 7일 입니다.)

Prof : Quels sont les sept jours de la semaine? (1주일의 7일은 무엇이지요?)

Namsou: Ce sont: lundi, mardi, mercredi, jeudi...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와 같은 대화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일어 날 수 있겠는가? 대화라기 보다는 단지 “소유하고 있다”라는 “Avoir”동사와 어휘나 요일을 가르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질문과 답 형식이다.

2) 80년대 교과서

80년대는 전통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교과서와 시청각 교수법을 시도한 교과서의 공존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 중심으로 만들어 졌으나 1과에 부정관사 un, une, des 로 시작하여 그 다음 정관사 le, la, les, être 동사, avoir 동사 순으로 과거의 교과서에서 보여준 제시순서와 형태위주로 만든 어색한 대화형식에서 크게 탈피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시청각교수법

을 적용한 교과서는 문형연습형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예: avoir 동사를 나타내는 2 교과서 (양영각, 지학사)

- Est-ce qu'elle a des oreilles?
- Oui, elle a des oreilles.
- Combien d'oreilles a-t-elle?
- Elle a deux oreilles.



Voici les oreilles de Mlle Girard.
Elle a aussi un nez et une bouche.
Voici le visage de Mlle Girard.
Elle a aussi deux bras, deux
mains, deux jambes et deux pieds.



- Vous avez combien d'enfants?
- J'ai deux enfants.
- Et vous, vous avez des enfants?
- Non, je n'ai pas d'enfant.
- Sabine! Est-ce que ton père a une voiture?
- Oui, il a une voiture.
- Simon! Est-ce que ta sœur a une poupée?
- Bien sûr, elle a plusieurs poupé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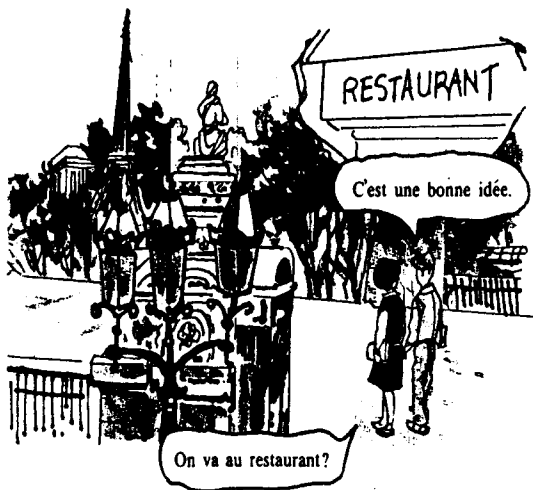
3) 90년대 교과서

6차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보여주었으며 불어교과서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언화활동(Acte de parole)별로 대화를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을 습득하도록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예: 13과 (주) 청암미디어

A On va au restaurant?
제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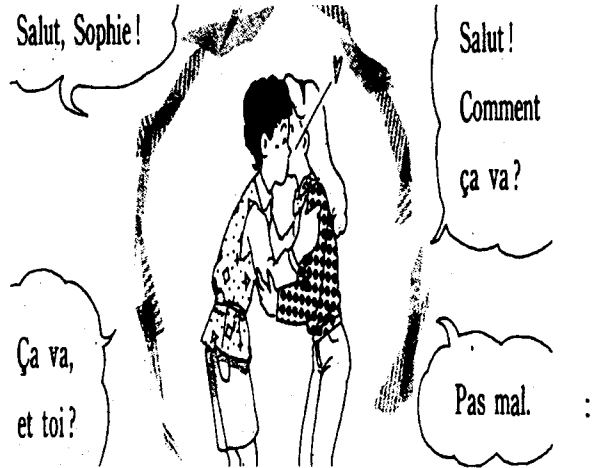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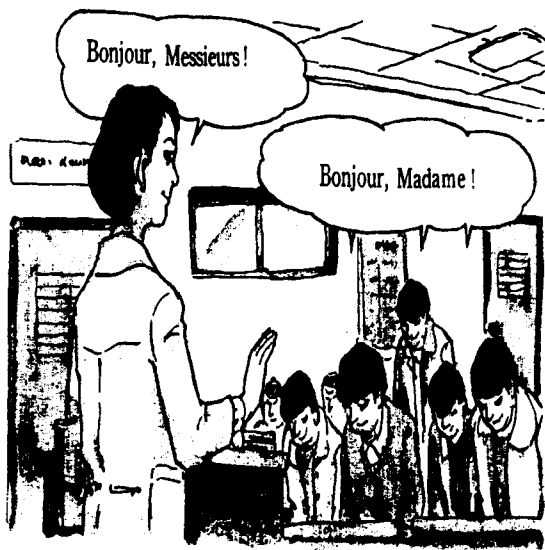


B Je t'invite chez moi.
초대하기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일상문화”(culture quotidienne)를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생활에서 못짓, 표정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표현하여 오해를 이르킬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예. 교학사, 천재교육



여러 차례의 교과과정의 변화와 함께 교과서는 문법, 형태위주의 교과서에서 언화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의사소통중심의 교과서가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과제이다.

II. 오늘날의 불어교육

1. 불어교육의 현황

제2외국어로서 불어교육은 위기라고 까지 말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1997-1999 3년간 제2외국어 교원 수와 과목별 학생수의 변화를 보면 독일어, 불어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어, 일본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제2외국어 교원 수 >

연도 \ 언어	독일어	불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1997	1,277	810	56	256	1,634
1998	1,282	800	56	283	1,632
1999	1,257	761	59	305	1,650

< 과목별 학생수 >

연도 \ 언어	독일어	불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1997	587,044	323,229	19,481	93,267	790,264
1998	477,282	289,154	18,232	93,808	731,416
1999	397,425	242,864	16,942	95,376	625,655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현재 불어교육의 문제점

1) 교육목표와 교육현실의 괴리

50-6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당 1-2시간 수업을 하는 현실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한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현실을 무시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영어와는 달리 학생들이 주위에서 프랑스어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영화, 상송이 고작이고 학교 교실에서 교사와 접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로 프랑스어의 유창성을 기대하기란 현실을 무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목표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2) 어휘한정의 모순

의사소통의 기능습득을 목표로 하고 어휘를 800단어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내용 구성에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제7차 교과과정)고 명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의 사실자료들을 제시하려면 어휘의 한정은 모순

이라고 본다.

3) 평가 문제

평가지침은 “(1)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고루 평가한다...” 라고 명백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2001년부터 실시하는 수능시험 평가에서 “듣기”가 배제되었다. 교과과정에서 제시한 목표, 내용, 교수방법 등 모든 지침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4) 교사의 질

가르칠 외국어를 자유자제로 사용할 줄 아는 교사만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언어입력을 제공할 수 있다.(Bogaards, 1988, p. 102) 다시 말해 교사가 실력이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사 자신이 프랑스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습득시킬 수 있겠는가? 본인이 실시한 교사들의 의견을 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큰 발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995년과 1999년 교사 연수생들의 발음, 회화능력의 자가 진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수생수	자신있다	보통이다	자신없다
1995	88명	3명(3.4%)	26명(29.5%)	59명(67%)
1999	37명	2명(5.4%)	12명(32.4%)	23명(62%)

언어표현에 62%-67%가 자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III. 21세기를 위한 제언

1. 제도적 장치

1) 학습단위 수

외국어 학습의 성패는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정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을 위한 불어능력시험인 초급 DELF(A1-A4)은 통상 400시간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험결과 한국사람인 경우 2-3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96년 TGV기술 연수를 떠날 철도청 직원 30명이 DELF A1에 응시하여 23명이 합격하였는데 이는 450시간의 불어 학습결과였다. 때문에 현재 6-12단위를 24단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 소단위 교실수업

교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활동을 하려면 10-15명의 소단위 교실수업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현재처럼 50명 이상인 교실에서 교사-학생간, 또는 학생간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듣기 평가 실시

평가란 목표설정 후 그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2001년부터 실시하는 수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배제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등학교의 모든 수업은 사실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평가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수법이 정해진다. 80년대 이후 교사들은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듣기 말하기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듣기 평가가 없다는 발표이후 교사들은 교실에서 테이프사용을 주저하게되고 다시 재래식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정책의 모순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2. 현실에 부합된 목표

현재와 같은 현실조건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습득시킬 수 없다면 현실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불어를 왜 배우는가? 이 땅에서 불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목표설정은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1) 이해능력습득의 중요성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인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

하지 않다. 그보다는 프랑스 영화나 상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불어 문장들을 접하기 쉽다. 그렇다면 듣기, 읽기 등 이해능력을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실 자료들을 접한다고 생각하면 어휘를 800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다 폭넓은 어휘가 독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하위단계 수준

Level에 따르면 언어활동은 발음, 철자, 통사형태와 관련된 하위 단계와 담화의 의미적, 화용적 구성과 관계되는 상위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하위단계가 자동화되면 될수록 상위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Besse & Porquier, 1984, p. 252) 200여 시간에 할 수 있는 하위단계 수준 즉 정확한 발음, 철자, 기초문법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다. 물론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주어진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불어를 한정해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3. 세계속의 한국

1) 제1, 제2외국어 선택의 자유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국경 없는 지구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는 생존경쟁의 한 도구다 된다.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서 세계화는 이제 구호가 아니며 실제로 직면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외국어로는 영어로 족하다는 사회적 통념은 세계화가 곧 “미국화”라는 등식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세계화는 무엇인가? 이 지구촌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으며 각각 독특한 문화를 지닌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고질적인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드릴 때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조류를 생각한다면 제2외국어를 영어와 같이 “외국어 분야”에 넣어 학생 스스로 제1외국어,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중학교에서부터 중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여 “중국통”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능불어의 개발

이제 우리는 불어교육을 학교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불어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전공 분야에 따라, 앞으로 일할 직업에 따라 소위 기능불어라는 것을 개발하여 불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는 불문학이나 불어학을 전공할 사람만이 불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산업, 예술, 요리, 호텔경영, 첨단과학분야 등 다방면에서 일하려는 인재들이 불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적 프랑스어 교육”(Porcher, 1978, p. 78)을 생각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I)*.
- 송정희 (1995). *Le français I*. 서울, 지학사.
- 송정희 (1997). 특수 목표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 *서유럽연구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광수 외 (1995). *Le français I*. 서울, (주) 천재교육.
- 송정희 외 (1999). *불어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 이근남 외 (1997). *제7차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형식 외 (1995). *Le français I*. 서울, (주) 청암미디어.
- 정병희 외 (1995). *Le français I*. 서울, (주) 교학사.
- 홍승오 외 (1989). *Le français A*. 서울, 양영각.
- Besse, H., & Porquier, R. (1984) *Grammaire et didactique des langues*. Hatier-Didier, Paris.
- Bogaards, P. (1988). *Aptitude et affectivité dans l'apprentissage des langues étrangères*, Hatier-Didier, Paris.
- Porcher, L. (1978). "Monsieur Thibaut et le Bec Bunsen" dans la pédagogi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Hachette, Paris.